

May8. 2016 Mother's Day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

❖ 1부 오전 9:00 ❖ 2부 오전 11:00 인도: 김원기 목사

Offering 헌금기도 사회자 Presider

● Praise 찬 송 24장

● Prayer 참회기도 다같이 Together

●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같이 Together

Hymn 찬 송 579장(통304)

Prayer 기 도 황동군 집사

Announcement 교회소식 사회자 Presider

Scripture Reading 성경봉독 출애굽기2:1-10

Choir 특 송 성가대찬양

Sermon 말 씀 김원기 목사

"어머니의 사랑"

● Prayer 기 도 다같이 Together

● Benediction 축 도 윤종대 원로목사

오후 찬양예배

❖ 주일 오후 1:30

☐ Mother's Day 가족과 함께

금요 기도회

❖ 금요일 오후 8:00

☐ 말씀 : 변계단 ☐ 본문 : 출27:1-21 ☐ 기도 : 합심기도

기타 예배 안내

☐ 새벽 기도회 ☐ 월요일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 교육부 예배 ☐ 주일 오전 11:00 / 주일 오후 1:30

구역별 모임 안내

☐ A구역 - 구역장 : 최영애권사 인도 : 윤재은사모
☐ B구역 - 구역장 : 김옥련권사 인도 : 사랑톨집사
☐ C구역 - 구역장 : 김봉재집사 인도 : 황창원전도사
☐ D구역 - 구역장 : 새가족부 인도 : 김원기목사

- 2016년도 표어 "예수님 처럼, 예수님 처럼"(교회 역사 가족)
- 이달에 읽을 성경은 사도행전입니다.
- 5월달 행사안내
 - 8일 : Mother's day(가족과 함께)
 - 15일 : 리더교육/ 임직식(오후4시)
 - 21일 : 오전 10시 청년부 Picnic이 Palos Verdes Park에서 있습니다.
 - 22일 : 구역예배/ 졸업예배(2부 연합예배)/ 수련회를 위한 Fundraising 을 합니다.
 - 29일 : 선교주일(남사현목사)/ 교역자월례회
- 오늘은 Mother's Day입니다.
- 5월 15일(오후4시)은 담임목사 위임과 임직식이 있습니다.
- 성가대원을 모집합니다.(문의: 성가대총무 성기현집사)
-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위원

- ☐ 기도 : 1부- 합심기도 •2부- 김경식 장로
- ☐ 안내 : 1부- 황창원전도사 •2부- 황동군집사
- ☐ 예배 특송 : 성가대찬양 ☐ 찬양예배 기도 : 합심기도

교회를 섬기시는 분

- ☐ 원로목사 : 윤종대 ☐ 시무장로 : 김경식
- ☐ 부 목 사 : 이득환 ☐ 협동장로 : 데이빗최, 이화정
- ☐ 교육목사 : 이철주 ☐ 전 도 사 : 황창원

헌 금

OFFERING Devotion

십의일조 : \$	
주일헌금 : \$	자녀헌금 : \$
감사헌금 : \$	교육부헌금: \$
선교헌금 : \$	구역헌금 : \$
지난주일 합계 : \$	

Mother's Day

마가복음7:24-30 거름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을 자녀를 위해 희생한 어머니이다. 그녀의 삶을 거름이라고 할수있다.

1.기도의 거름(25)

이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그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여기서 '곧'이라고 하는 시간 부사가 사용됩니다. 이것은 그녀가 자신의 딸의 위급함을 잘 나타내주는 대목이다. 그리고 기도를 연상케하는 '그 발 아래 엎드리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26절에도 '간구하니' 이 단어들은 모두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에는 진행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계속적으로 졸라대는 겁니다.

이러한 수로보니게 여인의 요청과 요구는 어머니만이 할수 있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훌륭한 자녀뒤에는 기도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2.희생의 거름(27,28)

소위 수로보니게 여인을 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치욕입니다. 예수님이 위 이러한 표현을 하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28절 '주여 옹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아니 개라고 해도 됩니다. 아니 내 아이를 위해서라면 내 아이가 낳을 수만 있다면 개라고 불리워도 ... 아니 개가 되겠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개든 못되겠습니까? 내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개가되도 됩니다. 자녀들이여 부모님은 당신들을 위해서 개라는 소리를 들어도 당신이 잘된다면 그렇게 되기를 기꺼이 원하십니다. 이러한 희생을 감당하기 위해 간도 없고 쓸개도 없는 사람들 부모입니다.

'꽃먹이 아이에게서는 몸을 떼지 말고, 어린 아이에게서는 몸을 떼되 손을 놓지 말고, 소년에게서는 손을 놓되 눈을 떼지 말고, 청년에게서는 눈은 떼되 마음을 떼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이란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가 눈을 감는 순간까지 단 한순간도 마음 편하게 발을 뻗을 수 없게 하는 평생의 기도제목이란 뜻입니다. 한마디로 자식은 '애물단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식은 모체의 살점을 떼어가는 악마'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당신들은 부모에게 그런 존재들입니다.

3.믿음의 거름(29,30)

우리가 거름되어 핀 꽃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 꽃은 우리들이 원하는 모습은 아닐 지라도 그 꽃 자체가 아름답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아니 부모라고 하는 거름이 없었더라면 당신은 없습니다. 자녀라는 이름의 여러분 당신들이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이유는 당신들을 위한 거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거름의 이름은 엄마 아빠입니다. 그러나 거름이된 이들은 슬퍼도 슬퍼지 않습니다. 아파도 아프지 않습니다.

당신들의 웃음만 있다면 말입니다. 당신들의 숨소리만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요15:10)



Mother's Day

담임목사 : 김원기
(Pastor, Wonki Kim)

www.dongsanoflove.org
(교회) 9440 Balboa Bl, Northridge, CA 91325

☎ 818.518.5108(교회)